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굴절 자질 습득

양 현 권
(서울대학교)

Yang, Hyun-Kwon. 2002. Korean EFL Learners' Acquisition of English Inflectional Feature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227-248. This paper reviews current developments in UG-related SLA · FLL research. It discusses the findings of Hahn (2000), Shin (2000) and Yang (2001)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issues: the role of UG parameters in SLA · FLL and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inflectional categories in Korean EFL learners' interlanguage. It contends that Korean EFL learners' inflectional grammars are constrained by L1 as well as by Universal Grammar.

1.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논리적 과제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언어 습득 연구에서는 다음의 의문이 흥미로운 과제 가운데 한 가지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 (1) How do learners come to acquire the complex properties of their language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on the basis of input that is not sufficiently rich and precise?

이는 이른바 “언어 습득에 있어서의 논리적 과제(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라고 일컬어지는 논제이다. 그 동안 이 논제에 대해 여러 이론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제기되어 왔던 바, 다음은 이 논제에 대한 원리와 변인 문법(Principles and Parameters Grammar) 및 최소주의 이론(Minimalist Program)의 해결안이다.

- (2) Human beings are equipped with an innately specified

language faculty consisting of a restricted set of highly abstract universal principles.

즉, 원리와 변인 문법 또는 최소주의 이론에 이론적 바탕을 둔 습득론자들에 따르면, 언어 습득이 가능한 근본적 이유는 보편 문법적 원리로서의 언어 체계가 모든 인간에게 생득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언어 습득에 있어서의 논리적 문제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제2언어 습득 및 외국어 학습을 논의하는 관점에서도 일부 수용되고 있으며, 특히 보편 문법의 시각에서 제2언어 습득 및 외국어 학습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에 들어 원리와 변인 이론(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Chomsky 1981, 1986)의 틀에서 제2언어 습득 및 외국어 학습을 이해하려는 관점을 통해 구체적인 이론적 형식을 지니게 되었고, 최근의 최소주의(Minimalist Program) 통사론(Chomsky 1995)에 입각한 언어 습득 이론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주로 제2언어 습득 및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보편 문법의 활용 가능성(accessibility)에 두어 왔으며, 다음은 이들 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주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3) Does UG remain available in non-primary acquisition and to what extent does UG mediate L2 acquisition?

즉, 보편 문법 이론의 틀에서 외국어 발달 단계를 파악하려는 관점에서는 그 논의의 주안점을 각 발달 단계의 문법 체계가 얼마나 보편 문법의 영향을 받는 가라는 문제에 둔다. 다음은 White(1989)에서 인용한 것으로, 그 동안 제2언어 습득 및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논의되어온 보편 문법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여러 경우를 망라하고 있다.

(4) 외국어 학습에서의 보편 문법의 역할

a. UG is accessible in L2 acquisition and functions as it

- does in L1 acquisition.
- b. UG is totally accessible, although L2 learners initially transfer the settings of the L1.
 - c. UG is accessible only via the settings of the L1.
 - d. UG is accessible but does not function exactly as it does in L1 acquisition.
 - e. UG is not accessible in L2 acquisition.

2. X-층위 원리와 핵선행[후행] 변인

보편 문법에서 전제되는 언어 체계는 원리(principles)와 변인(parameters)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언어 보편적인 특징을 지니는 한편 변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언어에 따라 가변적이다.

- (5) Some of abstract linguistic principles are invariant while other principles vary along certain parame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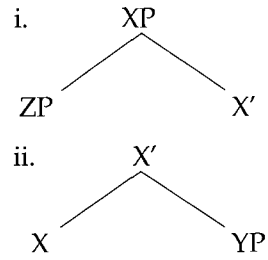
다음 (6)에는 문장 구조와 관련된 언어 원리가 예시되어 있다.

- (6) X-층위 원리
- a. $XP \rightarrow ZP; X'$
최대 투사 \rightarrow 지정어 투사; 중간 투사
 - b. $X' \rightarrow X; YP$
중간 투사 \rightarrow 핵; 보충어 투사

X-층위 원리(X-bar Principle) (6)은 언어 공통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문장 및 문장의 구성 요소 XP는 X라는 핵과 보충어구 YP 및 지정어구 ZP로 이루어진다.

다음 (7)에는 어순과 관련된 언어 변인이 예시되어 있다.

- (7) 핵 매개 변인 (Head Parameter)
- a. 핵 선행 변인 (Head-initial Parameter)



b. 핵 후행 변인 (Head-final Parameter)

- i. [XP ZP X']
 ii. [X' YP X]

핵 매개 변인 (7)에 따르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선형적 순서는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핵이 보충어보다 앞에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핵이 보충어 다음에 나타난다.

원리와 변인 문법에 입각한 언어 습득 이론에 따르면, 변인적 특성을 지니는 가변적 원리들은 학습 장면에서 주어지는 언어 입력의 특성에 따라 매개 변인의 값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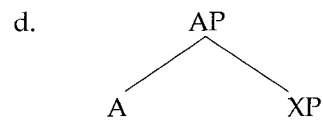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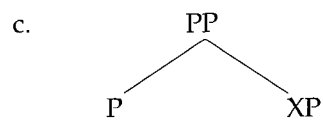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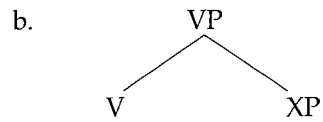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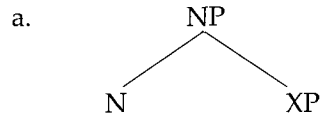
(8) Language acquisition is a systematic process whereby the learner sets each of the parameters of Universal Grammar at a value that is correct for the particular language being learned on the basis of input.

즉, 한국어 학습자는 “보충어가 핵 보다 앞서”는 한국어에 접하게 되면, 한국어의 문장 구조의 특징인 “보충어-핵” 어순을 습득하게 되는 한편, 영어 학습자는 영어에서는 “보충어가 핵 보다 뒤에 나타나므로” “핵-보충어”의 어순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장 구조와 관련하여 원리와 변인 문법에서 가정되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문장 구성 성분의 종류에 관한 것이 있다. Chomsky(1986)에 따르면, 문장을 이루는 요소는 크게 어휘 범주 (lexical categories)와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ies)로 대별된다. 어휘 범주에는 명사, 동사, 전치사 및 형용사가 포함되며, 이들은

각각 그 최대 투사로서 명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및 형용사구를 형성한다.¹⁾

(9) 어휘 범주 투사



또한 기능 범주는 주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범주들로서 이에는 굴절소, 보문소 및 지시소 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그 최대 투사로서 굴절소구, 보문소구 및 지시소구를 형성한다.

(10) 기능 범주 투사

- a. [IP I XP]
- b. [CP C XP]
- c. [DP D XP]

다음 (11)은 X-층위 원리 및 해당 매개 변인에 따라 영어의 문장 구조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¹흔히 부사 또는 부사류는 어휘 범주에 속한다고 여겨진다.

(11) 영어의 문장 구조

$$[IP DP [I I [VP \dots V \dots]]]$$

(11)에서 굴절소구 IP는 전통적인 구구조에서는 S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핵 위치에는 굴절소 성분이 상정되어 있으며, 주어 자리에 해당하는 굴절소구의 지정어 위치에는 전통적인 명사구 대신에 지시소구가 자리하고 있다.

3. 외국어 문장 구조 습득에 관한 보편 문법 이론

보편 문법의 틀에서 외국어 습득을 논의하는 관점에서 최근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연구 과제 가운데 한 가지는 기능 범주와 그 최대 투사가 습득 초기부터 활용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이 있는데, Vainikka/Young-Scholten(1994), Schwartz/Sprouse(1996) 및 Epstein 외(1998)의 연구가 그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먼저 Vainikka/Young-Scholten(1994)에 따르면, 제2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는 어휘 범주 및 어휘 범주 투사만이 활용 가능하며, 어떠한 기능 범주(투사)도 활용 가능하지 않다. 이들의 주장은 흔히 최소 구조 가설 (Minimal Tree Hypothesis)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의 논의는 “제2언어 학습자의 초기 언어 체계가 해당 언어의 모국어 화자의 언어 체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관찰에 입각해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제2언어 학습자의 초기 언어 체계에는 어휘 범주만이 관찰되는데 이들 어휘 범주는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전이된다고 한다.

(12) Our claim is that only *lexical categories* are present at the earliest stage of both L1 and L2 acquisition, and that during acquisition *functional projections* develop in succession.

한편, 이들은 제2언어 학습자의 초기 언어 체계에 기능 범주가 관찰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편 문법 체계가 제2언어 초기 학

습 단계에서는 활용가능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까닭은, 외국어 초기 학습 단계에 보편 문법이 활용 가능하면 초기 외국어 학습자의 발화에서 기능 범주가 관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²⁾

Vainikka/Young-Scholten(1994)의 주장은 터키어 및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일어 학습자의 자연 발화의 관찰에 근거한 것이다. 다음은 터키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일어 학습자의 발화를 옮겨 온 것이다.

- (13) Oya Zigarette trinken.
 Oya cigarette drink-INF
 'Oya smokes cigaret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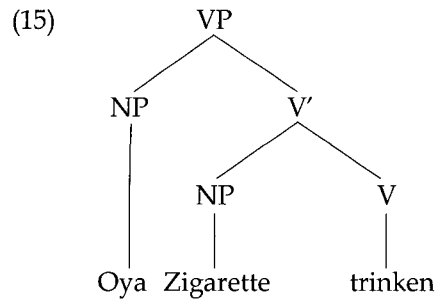
Vainikka/Young-Scholten(1994)에 따르면, 위에 예시된 중간 언어(interlanguage) 표현들은 다음에 정리된 바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 (14) 동사구 단계의 통사적 특징
- a. 동사 인상 (verb raising) 결여
 - b. 조동사와 범조동사 (auxiliaries and modals) 결여
 - c. 일치 관계 (an agreement paradigm) 결여
 - d. 보문소 (complementizers) 결여
 - e. 의문사 이동 (WH-movement) 결여

동사구 단계에서는, 이들 자질 가운데, 특히 동사 인상(verb raising)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Vainikka/Young-Scholten (1994) 등에서는 이를 동사구 단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간주한다.

위의 예 (13)의 구조는 다음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²⁾물론 이러한 논의에는 기능 범주 및 기능 범주 투사가 보편 문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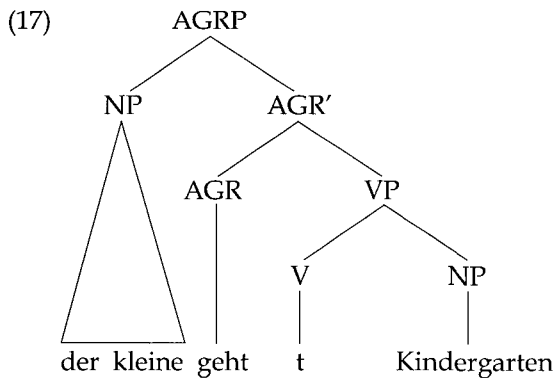


이 구조에는 어떠한 기능 범주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는 이 발화를 하는 학습자가 동사구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Vainikka/Young-Scholten(1994)는 동사구 다음 단계로 굴절소구(IP) 단계를 상정한다. 다음은 터키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일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 표현을 Vainikka/Young-Scholten(1994)에서 옮겨온 것이다.

- (16) Der kleine geht Kindergarten.
 the small one go-3SG kindergarten
 'The young one goes (to) kindergarten'

Vainikka/Young-Scholten(1994)에 따르면 동사구 단계를 넘어선 학습자의 중간 언어 문장 구조에서는, 다음 구조에 예시되어 있듯이, 동사가 원래 자리에 흔적(trace)을 남기고 굴절소 위치로 인상된다.



두 구조 (15)와 (17)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5)에는 기능범주 (투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반하여 (17)에는 기능범주 (투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Vanikka/Young-Scholten(1994)에 따르면, 외국어 학습자의 구구조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18) 외국어 학습자의 구구조 발달

동사구(VP) → 굴절소구(IP) → 보문소구(CP)

한편, Schwartz/Sprouse(1996)의 제안은 Vanikka/Young-Scholten(1994)의 제안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데, 이들에 따르면 모국어의 언어 지식이 중간 언어의 초기 체계를 형성한다고 한다. 즉, 제2언어 학습자들은 제2언어를 접하게 되는 초기 시점에서 자신들의 모국어 언어 체계에 관한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원래 터키어 모국어 사용자가 독일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사례에 근거한 것이다.

Schwartz/Sprouse(1996)에서는 터키어의 구구조로 다음을 가정한다.

(19) [CP [IP I [VP . . . V . . .]]]

이들에 따르면, Vanikka/Young-Scholten(1994)의 분석과는 달리, 표면적으로 굴절소구가 관찰되지 않는 구조에서도 동사구 이동이 관여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다음과 같은 발화 (20)에서 동사는 그 오른쪽 자리에 있는 굴절소의 위치로 이동하는데,

(20) spater der Charlie wollte zum Gefangnishauss

later the Charlie wanted to-the prison

'later Charlie wanted to go to the prison'

이는 (20)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구조 (21)에 잘 드러나 있다.

(21) [CP [spater der Charlie [IP wollte_i [VP zum t_i Gefangnishauss]]]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동되었다고 분석되는 동사의 형태가 부정형(infinitive form)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Schwartz/Sprouse (1996)은 이들 동사는 부정형이 아니라 굴절형이라고 제안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들 동사가 표면상 부정형으로 보이는 까닭은 단지 학습자들이 굴절형 자질을 나타내는 표면 형태소를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Schwartz/Sprouse(1996)의 분석이 이와 같이 모국어 언어 체계의 비중에 초점을 두는 만큼, 이들에 따르면 제2언어 학습자들의 중간 언어는 해당 제2언어를 모국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언어 체계와,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편, 학습의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제2언어 학습자들은 보편 문법의 원리 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제2언어 학습자의 모국어 체계가 해당 제2언어의 체계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이러한 가능성이 활용된다.

문장 구조 및 기능 범주의 습득에 관한 마지막 관점으로, Epstein 외(1998)의 제안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제2언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 발달에 있어서 모국어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제2언어의 초기 학습 단계에서부터 보편 문법이 활용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굴절소구 및 보문소구 등의 기능 범주 및 기능 범주 투사가 습득 초기에서부터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MIT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일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굴절소구과 보문소구의 습득 정도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된 예문의 일부를 옮겨 온 것이다.

(22) 실험을 위해 사용된 문장

a. Modal

The little girl can see a tiny flower in the picture.

b. Progressive

The clever student is inspecting the expensive basket.

c. Negation

i. The elderly grandfather is not picking the blue flower.

ii. The happy janitor does not want the new television.

d. Topicalization

i. Breakfast, the wealthy businessman prepares in the

kitchen.

ii. The pencil, the talented architect says is expensive.

e. Relative Clauses

The lawyer slices the vegetables which the father eats.

f. Wh-questions

i. Which young girl erases the tiny picture in the notebook?

ii. Which secret message does the young girl find in the basket?

위의 예문 가운데 a, b, c는 굴절소구의 습득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d, e 및 f는 보문소구 습득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의 실제에서는 일본인 영어 학습자로 하여금 위 문장들을 모방하여 발화하게 하였는데,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3) ... the Japanese speakers we tested had little difficulty with sentences analyzed as containing functional categories. They produce sentences involving complementizers (CP), and sentences involving IPs.

즉, 외국어 학습자는 그 습득 초기에서부터 기능 범주를 습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이는 곧 외국어 학습의 초기에 있어서 보편 문법의 원리가 활용 가능함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4.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굴절소 습득

3절에서는 보편 문법에 입각한 외국어 문장 구조 습득 연구를 세 부류로 나누어 개관하였다. 이제 논의의 초점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로 옮겨 보자. 먼저 4.1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문장 구조 발달의 개략적 모습을 Hahn(2000)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4.2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문장 구조 발달을 굴절소 습득에 초점을 두어 논의한다.

4.1. 문장 구조 발달 단계: Hahn(2000)

다음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초기 발화를 Hahn(2000)에서 옮겨 온 것이다.

- (24) a. Sally orange eat
 b. no sandwich eat
 'He doesn't eat a sandw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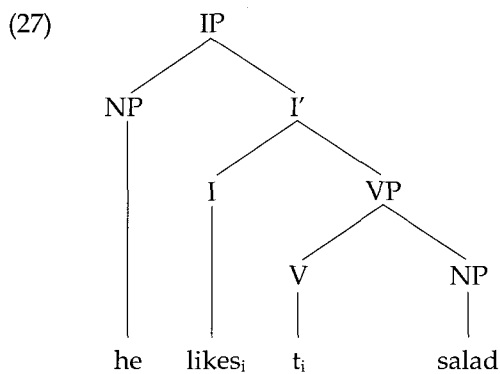
Hahn(2000)에 따르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문장 구조 습득은 “동사구(VP) → 굴절소구(IP) → 보문소구(CP)”의 발달 단계를 거치며, (24)에 예시된 발화는 동사구 단계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예에서는 굴절소의 자질이 관찰되지 않으며, (24a)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 (25) [_{VP} Sally [_V orange [_V eat]]]

동사구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이러한 발화의 특징은, Hahn(2000)에서 굴절소구 단계로 분석된 다음 예에서 관찰되는 특징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 (26) he likes salad

Hahn(2000)에 따르면 (26)과 같은 발화 예는 굴절소구 단계의 특징을 지니는 전형적인 예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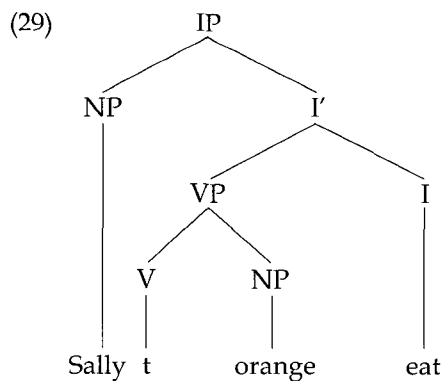


(27)에서는 동사 like가 굴절소 위치로 이동하였으며, 그 결과 동사와 굴절소가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 있다.

한편, Hahn(2000)에서 제시된 이러한 논의는, Schwartz/Sprouse (1996)의 논점을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28) 발화 예 (24a)에서 굴절소가 없다는 구체적 증거는 무엇인가?

즉, 논점이 되는 부분은 발화 예 (24a)에 굴절소가 표면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24a)에 굴절소가 없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24a)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9)에서는 동사 eat가 굴절소 위치로 이동하였다. (27)과 (29)의 중요한 차이점은 (27)에서는 굴절소가 동사의 왼쪽에 위치하는 반면 (29)에서는 굴절소가 동사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는 핵매개 변인과 관련된 것으로 기능범주의 습득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는 Hahn(2000)의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인 초기 영어 학습자의 발화에서 기능 범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논제—초기 영어 학습자에게 기능 범주 습득이 가능한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는 영어 학습 및 영어 교육 실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Vainikka/Young-Scholten(1994)의 견해대로

외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형화된 단계를 따라 학습한다면, 언어 습득과 관련된 논의가 학습 내용의 구성 및 구조화—이를테면 학습 자료의 마련—에 의미 있는 이바지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Schwartz/Sprouse(1996)의 견해대로, 외국어 학습자의 발달 과정에 해당 모국어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모국어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해당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논의하는데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Hahn(2000)과 Shin(2000)에 제시된 경험적 자료에 바탕을 두어,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습득 자료에서 기능 범주의 습득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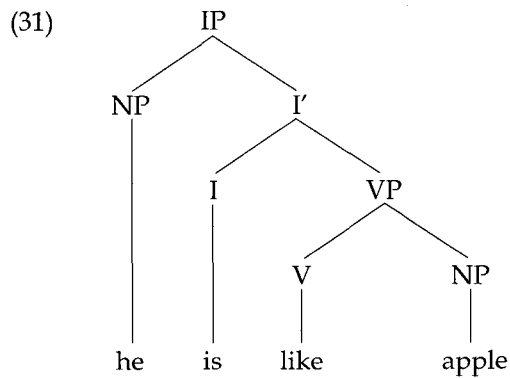
4.2. 미발달 기능 범주: 양현권 (2001)

다음은 Hahn(2000)에서 이른바 “S-be-X”구조라고 명명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초기 발화의 예이다.

(30) He is like apple.

Hahn(2000)에 따르면, 이러한 발화는 이른바 동사구 단계 이전에 관찰되는데, 이 발화의 특징적인 통사적 사실은 이 발화에서 굴절소의 자질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양현권(2001)에 따르면, (30)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31)에서는 기능 범주적 요소, 보다 엄밀하게는 굴절 요소가 상정되어 있다. 양현권(2001)에서는 한국인 초기 영어 학습자의 발화에서 (32)와 같은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31)과 같은 예에서의 be-동사가 굴절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 (32) a. He am like apple
b. He are like apple

즉, (31)에서 be-동사는 시제와 일치라는 굴절 자질을 지니는 기능 범주라는 것이다.

한편 (30)에 예시된 “S-be-X”는 한 가지 공통적 특이성을 지니는데, 그것은 목표어인 영어에서와는 달리 굴절소 자질이 동사와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 (33)은 Hahn(2000)에서 인용한 것이며, (34)는 Shin(2000)에서 인용한 것이다.

- (33) a. Sally is eat.
 ‘Sally eats bread.’
b. mummy is make
 ‘Mummy makes breakfast.’
c. she is egg eat?
 ‘Does she eat eggs?’
- (34) a. I'm like soccer.
 ‘I like soccer.’
b. he is live Lucky Apartment.
 ‘He lives in Lucky Apartment.’
c. Danny is play computer.
 ‘Danny plays a computer game.’

(33)과 (34)에 예시된 이러한 특징은, “S-be-X” 단계의 영어 학습자의 be 동사가 지닌 기능 범주 자질이 목표어의 굴절 요소가 지닌 기능 범주 자질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34b)와 같은 구조는 목표어인 영어에서는 (35)와 같이 실현되기 때

문이다.

(35) He lives in Lucky Apartment.

양현권(2001)에서는 (33)과 (34)에 제시된 예에서 관찰되는 be 동사의 통사적 특성에 근거하여, “S-be-X” 구문에서의 be 동사를 미발달 기능 범주 F로 파악하였다.

(36) [_{FP} NP [_F [F be] VP]]

“S-be-X” 구문에서 be 동사는 시제와 일치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 범주라고 파악할 수 있지만, 동사의 인상(raising)을 유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한—목표어인 영어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기능 범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30)에 대한 (31)과 같은 분석—즉, “S-be-X” 단계에 있는 영어 학습자의 문장 구조를 (36)과 같이 파악하는 입장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Vanikka/Young-Scholten(1994)의 분석보다는 Schwartz/Sprouse(1996)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능 범주를 습득하는데, 이는 곧 습득의 초기부터 기능범주에 대한 습득이 가능하다는 Schwartz/Sprouse(1996)의 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앞서 (24)와 관련된 논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만약 동사구 이전 단계에서 관찰되는 (31)과 같은 예에 기능 범주를 상정한다면 동사구 단계에 속하는 (24)에서도 기능 범주를 상정해야 하는데, 앞선 4.1의 논의에서 살펴 본 대로, (24)에는 기능 범주와 관련된 어떠한 자질도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Schwartz/Sprouse(1996)의 제안을 따라, (24)와 같은 예에서 굴절소는 부정형이 아니라 굴절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4)에서 동사가 표면상 부정형으로 보이는 까닭은 단지 학습자들이 굴절형 자질을 형태적으로 구현하는 표면 형태소를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 등과 관련된 문제를 이와 같이 이해하더라도, “S-be-X” 단계에 있는 영어 학습자의 문장 구조를 (36)과 같이 파악하는 입장이 Schwartz/Sprouse(1996)의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그것은 (33)과 (34)의 예를 빌어 논의한 바와 같이, “S-be-X” 단계에 있는 영어 학습자의 문장에서 관찰되는 굴절 자질이 목표어인 영어의 굴절 자질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해당 학습자의 굴절 요소는 일치·시제의 자질을 지니지만, 동사 인상을 유인하는 자질은 지니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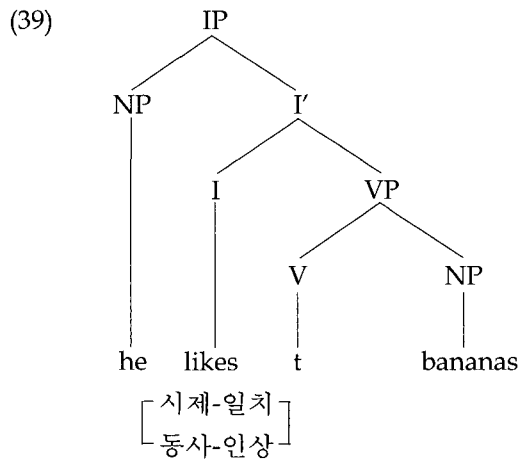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목표어인 영어의 굴절 자질을 다음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어 보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37) 영어의 굴절 자질

- a. 일치 및 시제 자질
- b. 동사 인상 유인 자질

(37)에 따르면, (38)과 같은 영어 예문에서 굴절 요소는 3인칭 단수 현재라는 일치 및 시제 자질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의 인상을 유인하는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38) He likes bananas.



영어의 굴절 요소를 (37)과 같이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S-be-X” 단계에 있는 한국인 초기 영어 학습자가 목표어의 굴절 자질 가운데 시제와 일치에 관련된 자질은 습득하였지만 동사 인상과 관련된 자질은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파악은 Schwartz/Sprouse(1996)가 주장하는 바 초기 외국어 학습자에게 굴절 자질의 습득이 가능하다는 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S-be-X” 단계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목표어의 굴절 자질 “전체”를 습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외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능 범주 습득이 가능하다면, 왜 “S-be-X” 단계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굴절 자질 전체를 습득하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습득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 결론에 제시되어 있다.

V. 결론

보편 문법의 관점에서 외국어 문장 구조의 습득을 논의하는 관점은 크게 보아 세 가지의 관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각각 Vainikka/Young-Scholten(1994), Schwartz/Sprouse(1996), 그리고 Epstein 외(1998)의 연구로 대표되는 관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Hahn(2000), Shin(2000) 및 양현권(2001)에 근거하여,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문장 구조 습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한국인 초기 영어 학습자는 영어 문장의 기능 범주에 해당하는 굴절 자질을 습득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위 세 관점 가운데 Schwartz/Sprouse(1996)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S-be-X” 구조와 관련된 4.2절에서의 논의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관찰되는데, 그것은 “S-be-X” 단계에 있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목표어의) 굴절 자질 전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굴절 자질의 일부분만—(동사의 굴절소로의 이동을 제외한) 시제와 일치 자질—을 습득한다는 것이다.

한국인 초기 영어 학습자는 왜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국어의 영향이다. 이미 Yoon

(1990) 등에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어의 통사 구조에서 일치 자질과 시제 자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영어 등의 인구어에서 관찰되어 온) 동사의 굴절소로의 이동을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어의 통사적 구조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수용한다면, 한국인 초기 영어 학습자가 영어의 굴절 자질 가운데 (시제와 일치 자질을 습득할 수 있지만) 동사의 굴절소로의 이동과 관련된 자질을 습득하기 어려운 까닭은 모국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0) 한국인 초기 영어 학습자의 영어 굴절 자질 습득

- a. 한국인 초기 영어 학습자가 영어의 굴절 자질 가운데 시제와 일치 자질을 습득할 수 있는 까닭은 이들 자질이 모국어인 한국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 b. 한국인 초기 영어 학습자가 영어의 굴절 자질 가운데 동사의 굴절소로의 이동과 관련된 자질을 습득하기 어려운 까닭은 이들 자질이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양현권. 2001.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be”의 범주적 특성, 《영어학》 1, 59-79.
- Adjemian, C. 1976. On the nature of interlanguage systems. *Language Learning* 26, 297-320.
- Bley-Vroman, R. 1989. What is the logical problem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S. Gass and J. Schachter, eds., *Linguistic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41-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ncino, H. 1977. *Grammatical Morphem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Unpublished manuscrip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The Pisa Lectures*.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homsky, N. 1995.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lahsen, H., ed. 1996. *Generative Perspectives on Language Acquis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Corder, S. P.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5, 161-70.
- Corder, S. P. 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prez, V. and A. Pierce. 1993. Negation and functional projections in early grammar. *Linguistic Inquiry* 24, 25-68.
- Deprez, V. and A. Pierce. 1994. Crosslinguistic evidence for functional projections. In Hoekstra and Schowartz, eds. 57-84.
- Davies, A., C. Criper, and A. Howatt, eds. 1984. *Interlanguag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Davis, H. 1987. *The Acquisition of the English Auxiliary System and Its Relation to Linguistic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Dulay, H. and M. Burt. 1974. Natural sequence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24, 37-53.
- Epstein, S., S. Flynn, and G. Marthardjono. 1998. The strong continuity hypothesis: some evidence concerning functional categories in adult L2 acquisition. In S. Flynn, G. Marthardjono, and W. O'Neil, eds.
- Eubank, L. 1991. *Point Counterpoint: Universal Grammar in the Second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s.
- Eubank, L. 1993. On the transfer of parametric values in L2 developmen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Grondin, N. and L. White. 1996. Functional categories in child L2 acquisition of French. *Language Acquisition* 5, 1-34.
- Guilfoyle, E. and M. Noonan. 1992. Functional categories a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37, 241-77.
- Hahn, H.-r. 2000. *UG Availability to Korean EFL Learners: A Longitudinal Study of Different Age Group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Halle, M. and A. Marantz. 1993.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111-76. Cambridge, Mass.: MIT Press.
- Harris, T. and K. Wexler. 1996. The optional-infinitive stage in child English: evidence from negation. In H. Clahsen, ed.
- Hyams, N. 1996. The underspecification of functional categories in early grammar. In H. Clahsen, ed.
- Krashen, S., N. Houck, P. Giunchi, S. Bode, R. Birnbaum, and G. Strei. 1977. Difficulty order for grammatical morphemes for adult second language performances using free speech. *TESOL Quarterly* 11, 338-41.
- Lakshmanan, U. 1998. Functional categories and related mechanisms. In

- S. Flynn, G. Martohardhono, and W. O'Neil, eds.
- Lasnik, H. 1994. Verbal morphology: syntactic structures meets the minimalist program. In P. Kempchinsky and H. Campos, eds., *Evolution and Revolution in Linguistic Theory*,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Meisel, J. 1990. Inflection: subjects and subject-verb agreement. In J. Meisel, ed., *Two First Languages: Early Grammatical Development in Bilingual Children*. Dordrecht: Foris.
- Meisel, J. and N. Mueller. 1992. Finiteness and verb placement in early child grammars. In J. Meisel, ed., *The Acquisition of Verb Placement: Functional Categories and V2 Phenomena in Language Acquisition*. 109-38. Dordrecht: Kluwer.
- Mueller, N. 1993. Parameters cannot be reset: evidence from the development of COMP. In J. Meisel, ed., *Bilingual First Language Acquisition—French and German Grammatical Development*. Amsterdam: John Benjamins.
- Phillips, C. 1996. Root infinitives are finite. In E. Hughes, and A. Zukowski, eds., *Proceedings of BUCLD 20*, Somerville, Mass.: Cascadilla Press.
- Poeple, D. and K. Wexler. 1993. The full competence hypothesis of clause structure in early German. *Language* 69, 1-33.
- Sano, T. and N. Hyams. 1994. Agreement, finiteness and the development of null arguments. *Proceedings of NELS 24*, 543-58.
- Schwartz, B. D. 1996. On the hypothesis of 'Transfer' in L2A: minimal trees and absolute L1 influence. In S. Flynn, G. Marthardjono, and W. O'Neil, eds.
- Schwartz, B. D. 1998. On two hypothesis of 'Transfer' in L2A: minimal trees and absolute L1 influence. In S. Flynn, et al. eds.
- Schwartz, B. D. and R. Sprouse. 1996. L2 cognitive states and the Full Transfer/Full Access model. *Second Language Research* 12, 40-72.
- Shin, J.-s. 2000. *Functional Category Acquisition by Korean EFL Learners: The Role of UG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Stromswold, K. 1990. *Learnability and the Acquisition of Auxiliaries*. Doctoral dissert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 Vainikka, A. and M. Young-Scholten. 1994. Direct access to X'-theory: evidence from Korean and Turkish adults learning German. In T. Hoekstra and B. D. Schwartz, eds.
- Vainikka, A. and Young-Scholten, M. 1995. *Tree Growth and Morphosyntactic Triggers in Adult SLA*, Paper presented at GASLA conference. New York: CUNY.
- Wexler, K. 1992. *Optional Infinitives, Head Movement, and the Economy of Derivations in Child Grammar*, Occasional Paper 45. Department Brain & Cognitive Science, MIT.
- Wexler, K. 1994. Finiteness and head movement in early child grammar.

- In D. Lightfoot and N. Hornstein, eds., *Verb Movement*, 305-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 L. 1989. *Universal Gramma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White, L. 1990/1991. The verb movement paramete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Acquisition* 1, 337-60.
- Yoon, J.-Y. 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양현권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번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우편번호: 151-748

전화번호: 02) 880-7680

E-mail: yhkeun@snu.ac.kr

접수일자: 2002. 4. 25.

게재결정: 2002. 5. 30.